

불안한 마무리... 뒷문 지킬 에이스가 없네

선발투수 투구 수 65개로 묶여 5회부터는 불펜진 운영 필수
오브라이언 낙마에 계획 꼬여

송승기·고우석 등 불안감 노출
류감독, 마운드 보직 확정 못 해
선발요원 제외 7명 돌려막을 듯

대표팀 오늘 체코와 개막전



단기전에서 불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대부분 승부가 경기 후반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구 수 제한이 있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은 더 그렇다. 조별리그에서 최대 투구 수는 65개다. 이 때문에 선발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5회부터는 불펜을 가동해야 한다. 한국이 4강에 진출했던 2006년 1회 WBC에서는 구대성과 박찬호가 확실하게 뒷문을 책임졌고, 준우승을 차지한 2009년 2회 WBC에서는 정현욱이 불펜의 수호신으로 맹활약했다.

한국이 이후 세 번의 WBC에서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겪어 온 것은 불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17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을 노리는 한국 야구대표팀의 류지현 감독은 2026 WBC

를 앞두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에서 활약하는 한국계 선수 라일리 오브라이언(31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최고시속 160km를 웃도는 강속구를 뿌리는 오브라이언은 지난 시즌 42경기에서 3승 1패, 6홀드, 6세이브, 평균자책점 2.06을 기록하며 세인트루이스 불펜의 핵심 요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브라이언이 종아리 부상으로 테드마크를 반납하면서 류지현 감독의 불펜 구상이 꼬였다.

대표팀은 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데인 더닝이 3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뒤 불펜을 가동했으나 불안감을 노출했다. 송승기-고우석-김영규-조병현-유영찬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랐으나 4



%이닝 동안 5안타와 사사구 9개를 남발하며 5실점 했다. 오릭스 1.5군을 상대로 5명의 투수를 투입했으나 경기를 마무리 지지 못한 대표팀은 8회말 2아웃부터 일본 독립리그 소속 투수 2명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2일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 평가전에서는

3회부터 노경은-손주영-고영표-류현진-박영현-김택연이 등판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베테랑 노경은과 류현진의 노련한 투구가 돋보였지만, 나머지 투수들의 안정감은 떨어졌다. 류지현 감독은 마운드 보직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8명은 상황에 따라 선발 또는 롱맨으로 가용하고 나머지 7명은 불펜으로 돌린다 는 계획만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고우석과 조병현, 박영현 등이 불펜 에이스로 꼽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대표팀의 구세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C조: 한국-일본-대만-호주-체코 ·정소: 日 도쿄돔	
3월 5일(목) 오후 7시	vs 체코
3월 7일(토) 오후 7시	vs 일본
3월 8일(일) 낮 12시	vs 대만
3월 9일(월) 오후 7시	vs 호주

자료=WBC

양효진의 기록들
2007-2026년 3월 8일 은퇴식

1 출전 경기수	564
2 통산득점	8354
3 공격포인트	6255
4 블로킹	1735
5 서브에이스	364
6 올스타 출전	17
7 베스트7 선정	12
8 시즌 1위	5
9 통합우승	3

자료=현대건설

V리그 19년 양효진... 불멸의 기록 남기고 '아듀'

여자 프로배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던 베테랑 미들 블로커 양효진(37·현대건설)이 2025-2026시즌을 끝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온 현역 프로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하면서 그가 써온 V리그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효진 선수가 오랜 고된 끝에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19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양효진의 은퇴 결정을 알렸다. 1월25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올스타전 공식 기자회견 때 "조만간(은퇴 여부에 관한)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은퇴 가능성을 열어뒀던 양효진이 은퇴를 공식화한 것

현대건설 한팀에서만 뛴 전설 이번 시즌 끝나면 은퇴하기로 "떠들썩하게 떠나기 싫어요" 은퇴 투어 추진 정중히 사양

그는 당시 "시즌 전 병원 검진에서 무릎에 물이 찬 것이 발견됐다. 오랜 세월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물이 찬 게 다행"이라며 은퇴를 고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구단은 양효진의 은퇴 결심이 서자 지난 2024-2025시즌 '배구 여제' 김연경이 했던 것처럼 '은퇴 투어' 추진을 검토했다.

하지만 양효진은 소속팀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떠들썩하게 떠나고 싶지 않라며 은퇴 투어 추진을 정중히 사양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리는 페퍼저축은행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은퇴식과 함께 등번호(14번) 영구 결번식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양효진은 2007-2008 신인 드래프트 때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의 지명을 받아 19시즌째 한 팀에서만 뛴 여자 배구 레전드다. 그가 출전한 564경기에서 작성한 통산 8354득점은 전인미답의 대기록이다. 여자부 통산 득점 부문 2위인 박정아(페퍼저축은행)의 6407득점과는 무려 1947점이나 차이가 난다. 또 남자부 통산 득점 부문 선두인 '쿠바

특급'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현대캐피탈·등록명 레오)의 7353득점보다도 1000점 이상이 많은 수치다. 양효진이 공격수가 아닌 미들 블로커로 세운 득점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만나다. 블로킹 부문에서도 1735개를 기록, 부문 2위 정대영(은퇴)의 1228블로킹과 현역 선수 중 두 번째인 김수지(한국생명)의 1078블로킹과 각각 507개, 657개 차이를 보인다. 또 남자부 최고 기록 보유자인 신영석(한국전력)의 1398블로킹보다 337개가 많다. 양효진의 기록이 당분간 깨지기 어려운 이유다. 또 통산 공격 득점 1위(6255점)와 통산 서브 부문 3위(364개)에도 이름을 올려왔다. 그는 2024-2025시즌 종료 후 다섯 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으나 출신 준비를 위해 은퇴를 고민하다가 연봉

5억 원, 옵션 3억 원을 합쳐 총액 8억 원에 계약했다. 주위에선 '한물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는 올 시즌 소속팀의 32경기 에 모두 출전해 408득점(경기당 평균 12.7점)에 세트당 블로킹 0.754개를 기록했다. 여자부 득점 부문에선 10위에 올라 있고, 블로킹 부문에선 2위에 랭크돼 있다. 득점 부문 10위는 토종 공격수들을 모두 따돌리고 국내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다. 현대건설(승점 61)이 중하위권 전력 평가를 깨고 2위로 한국도로공사(승점 63)와 선두 경쟁을 벌인 데는 양효진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 끝내 은퇴를 선택한 양효진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남은 시즌 마지막 순간까지 현대건설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